

## 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

- ◆ 올해 1~4월, 대중 수입 감소에 따라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 축소세
- ◆ IPEF 가입국으로부터 수입이 대중 수입을 추월, 격차 지속 확대
- ◆ 교역, 자본, 정보, 인적 교류에서도美中간 변화 양상 확인

### 1 미국 시장에서 대중 상품 수입 감소세 (상무부 통계 6.7.자)

- 올해 1~4월까지 미국의 대중 누적 상품 수입액은 1,314억 달러이며, 이는 전년 동기 수입액 1,761억 달러 대비 25.4% 감소
  - 같은 기간 미국의 전 세계 수입은 약 9,958억 달러였으며, 전년 1조 477억 달러에 비해 약 5%(519억 달러) 감소
  - 즉, 미국의 전 세계 수입에 비해 대중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
### 2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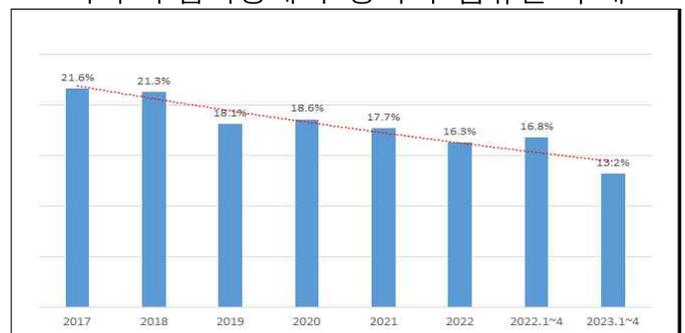
- 미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'17년 당시 21.6%로 최고를 기록한 이래 점차 하락해, '22년 16.3%까지 축소
  - \* ('17) 21.6% ▶ ('18) 21.3% ▶ ('19) 18.1% ▶ ('20) 18.6% ▶ ('21) 17.7% ▶ ('22) 16.3%
  - '22년 1~4월까지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6.8% 수준이었으나, 올해 같은 기간 점유율이 13.2%로 감소

< 미국의 대중 상품 수입 추이 >
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<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추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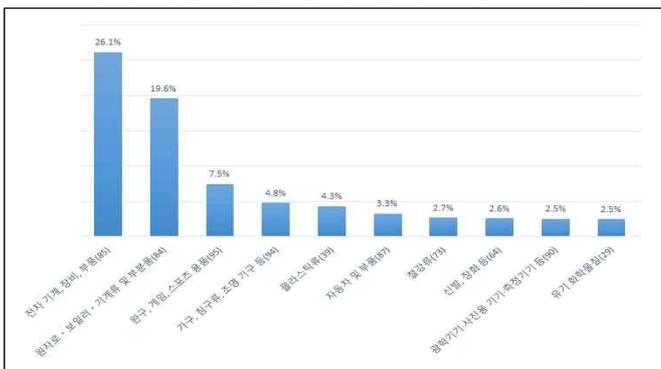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### 3 올해 1~4월 대부분 품목에서 對中 수입 감소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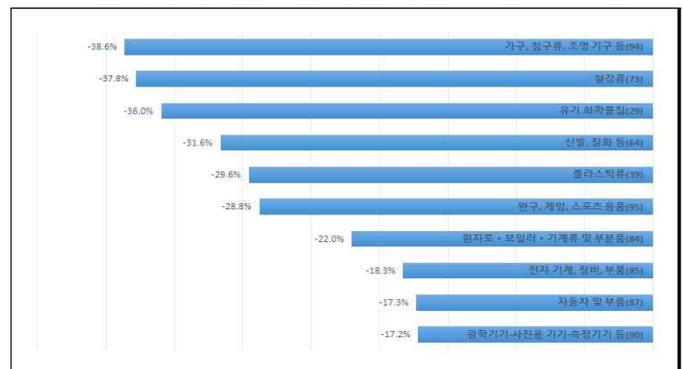
- HS 코드(2단위) 기준 전체 98개 품목 중 13개를 제외한 85개 품목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('23.1~4월)이 전년에 비해 축소
  - 미국의 전체 대중 수입의 76%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0개 품목의 수입이 작년 대비 24% 이상(320억 달러) 감소
  - 특히, 전자·기계·장비 및 부품(HS 코드 85단위)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억 달러 이상(-18.3%) 가장 많이 감소했고,
  - 그 외 원자로·보일러·기계류(84단위), 완구·게임·스포츠(95단위), 가구·침구·조명(94단위) 등 중국의 주력 품목 수입 대폭 감소

< 미국 대중 수입 상위 품목 비중 ('21년) >
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< 1~4월 미국 품목별 대중 수입 증감 ('22년 vs. '23년) >
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### 4 2019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對 IPEF 회원국 수입이 對中 수입을 추월

- '13~'22년 미국의 대중 수입은 연평균 2.1% 성장에 그쳤으나, 14개 IPEF 회원국으로부터 총수입은 7.0% 증가
  - 특히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, 싱가포르 등 ASEAN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11.4%의 빠른 성장세를 보임.
  - \*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은 7.1% 증가 (2013~2022년 연평균)
- '19년 IPEF 회원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19.7% 기록, 최초로 중국 점유율(18.6%)을 추월, 2022년에는 IPEF 21.6% 對 중국 16.3%로 격차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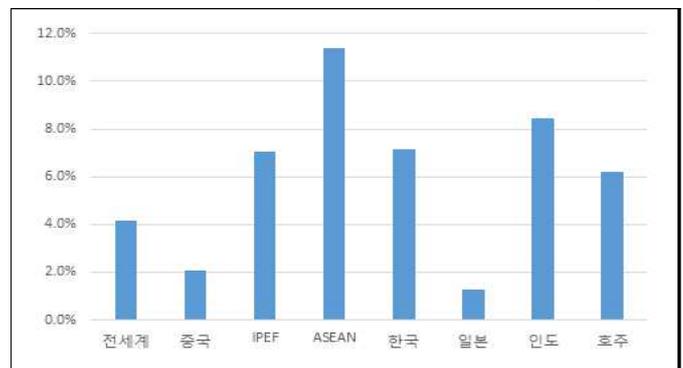
- 올해 1~4월 미국의 대중 수입은 전년에 비해 25.4%나 줄었으나, IPEF 가입국으로부터 수입은 5.4% 감소에 그침.
- 같은 기간 ASEAN 국가로부터 수입은 10.8% 감소했으며, 대 한국 수입도 소폭(-0.8%) 감소함.

<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비교 (중국·IPEF·ASEAN) >
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< 대미 수출 연평균 성장률 비교 ('13~'22) >
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## 5 무역 통계로 보는美中 교역 디리스팅 현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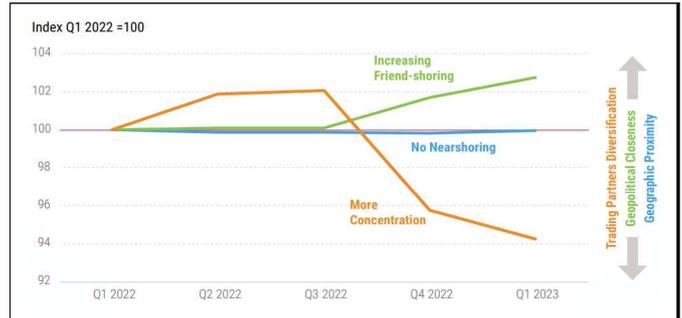
- 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 보고서(6.21)에 따르면, 올해 1분기 국제 상품·서비스 교역은 작년 하반기 감소세에서 반등에 성공했으나,
  - 美中 경쟁,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무역 의존(Trade Dependencies) 관계의 변화가 가속화 중이라고 분석
- 특히, 美中 간 상호 무역 의존도가 축소하는 현상
  - 최근 4개 분기('22.2분기~'23.1분기) 동안 미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2% 감소했고, 중국의 대미 의존도 역시 0.9% 축소
  - \* 동 기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1.9% 감소 평가
- 2022년 하반기 들어 프렌드쇼어링(Friend-shoring) 추세
  - 인접국 간 교역이 증가하는 니어쇼어링(Near-shoring) 효과는 미미했으나, 정치적 친소관계에 따른 교역 증감 추세 뚜렷
  - 또한, 중요 교역국끼리 무역이 증가하는 집중화 급진행, 다각화는 후퇴

< 미중 상호 무역 의존도 추세 ('21.Q1~'23.Q2) >



[자료] UNCTAD

< 프렌드쇼어링 및 교역 집중화 현상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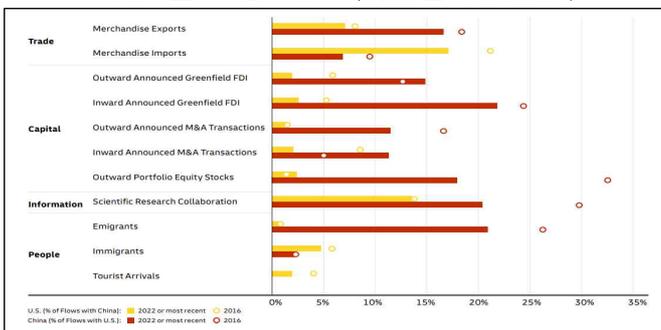


[자료] UNCTAD

**6 무역 외 자본, 정보, 인적 교류에서도 변화 양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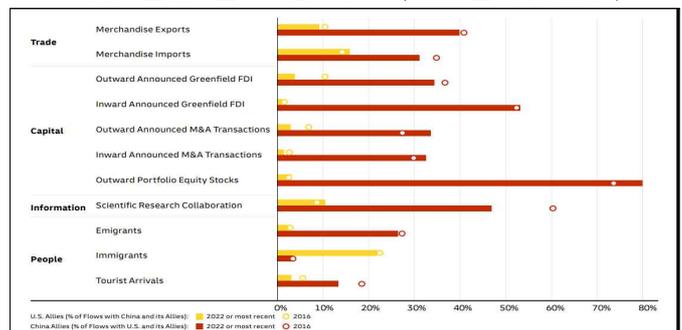
- 글로벌 운송기업 DHL이 뉴욕大와 공동으로 발간한 「DHL GLOBAL CONNECTEDNESS INDEX 2022」 ('23.3월)에서,
  - 상품·서비스 교역, 자본, 정보, 인적 교류 등 국제 흐름(International Flow)을 분석한 결과, 미중간 '일반적 패턴'의 변화가 진행 중
    - \* 2016-2022 미국의 대중 흐름은 11개 지표 중 8개 감소 / 중국의 대미 흐름은 10개 중 7개 감소
- UNCTAD은 미-중 우방 진영 간 블록화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보고,
  - 중국 진영(중국 및 그 우방)의 미국 진영(미국 및 그 우방)에 대한 의존도 (share of flow)가 반대의 경우보다 4.6배 큰 것으로 집계되어, 본격적인 블록화 실현 시 중국 진영의 피해가 훨씬 지대할 것으로 분석
    - \* 글로벌 GDP에서 미국 진영은 57%, 중국 진영 24%, 중립국 19% 비중 차지

< 미중 간 흐름 비교 (2022년 vs. 2016) >



[자료] UNCTAD

< 미중 진영 간 흐름 비교 (2022년 vs. 2016) >



[자료] UNCTAD

[자료] 상무부 통계, UNCTAD, DHL, 월스트리트저널, 블룸버그 외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